

## Sermon: The Age of Online Church

### ■ 오늘의 본문말씀 : 히브리서 10:24-25

Today's main verses are Hebrews 10:24-25.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히브리서 10:24-25절입니다.

『Hebrews 10:24-25』<sup>24</sup> *And let us consider one another to provoke unto love and to good works: <sup>25</sup>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히브리서 10:24-25』<sup>24</sup>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sup>25</sup>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오기를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 1 Introduction 서론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ow is your faith these days? 요즘 당신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Do you think you have grown more spiritually compared to the time before COVID-19? 당신의 믿음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Personally I know a few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been growing spiritually in spite of COVID-19 situation. 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However, most Christians seem to be stagnant or retarded in terms of spiritual life during COVID-19.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적 측면에서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Christians have not had the enough opportunities to gather together to worship God since around one year ago.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 일 년 전부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not a few pastors like John McArthur have been holding indoor services despite threat of arrest, 그래서, 존 맥아더와 같이 적지 않은 목사들이 구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내 예배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Constitution doesn't give governors the power to tell the church what it can do, 그들은 헌법은 행정부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also they know that the spiritual status of Christians could be worsened if they forsake the assembling of themselves together. 또한 만일 서로 모이는 일을 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However, some say like this: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t was God (not Satan) that made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도록 한 것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야.

And also it was God (not Satan) that made online worship services. 또 온라인 예배를 만든 것도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야.

So it will not be a problem if we do not gather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어.”

In other words, they insist that Christians need to pursue online church because it has become the mainstream. 다시 말하면, 온라인 교회에 대세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온라인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the message entitled “The Age of Online Church” in order to clarify what the church is for, and how Christians are to live, and where we are located now in the biblical perspective. 따라서 이제 저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자 “온라인 교회의 시대”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this morn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know your will for the

church and have the ability to discern this age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 2 Church 교회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I think I have asked this same question a few times before. 전에도 몇 번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Yes, the church is not a church building, but the assembling of believers.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Let's read Romans 16:5. 로마서 16:5절을 읽어봅시다.

『Romans 16:5』<sup>5</sup> ...[greet]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로마서 16:5』<sup>5</sup>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Here Apostle Paul refers to the church in their house-not a church building, but a body of believers.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 교회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모임 - 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So, some may insist that the church doesn't need a building because it is not a church building, but a body of believers.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However, this view is not only unbiblical but also self-contradictory. 하지만, 이 견해는 성경적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 모순이기도 합니다.

As we've just read, Romans 16:5 mentions "their house," a building in which the church is.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서 16:5절은 그들의 집, 즉 교회가 있는 건물을 언급합니다.

Thus, the local church naturally needs a place or a building for the saints to gather. 이처럼, 지역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일 장소 혹은 건물이 필요합니다.

Let's go to Hebrews 10:25. 히브리서 10:25절을 봅시다.

『Hebrews 10:25』<sup>25</sup>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히브리서 10:25』<sup>25</sup>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As such, we have to do our best to gather together. 이처럼,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So, we need places or buildings to meet together.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날 장소, 건물이 필요합니다.

In other words, local churches need buildings! 다른 말로 하면, 지역 교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Now, let me ask you another question about the church. 이제, 교회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church?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God's people gather in a variety of places and settings - and yet they gather for the same grand purpose.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장소, 여러 상황에서 모이지만, 그들은 한 가지 커다란 목적을 위해 모입니다.

The church is God's idea and is God's plan, as Matthew 16:18b says,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6:18b절은 말합니다.

『Matthew 16:18b』<sup>18</sup>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마태복음 16:18b』<sup>18</sup>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And no matter what the building looks like or how the programs are organized, the church must be absolutely committed to what God wants His church to be. 건물 모양이 어떻든,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떻든,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목적에 전념해야 합니다.

So, the local church exists by God and for God, 지역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we see that God's glory is meant to be the ultimate determining factor for all the church does, as 1 Corinthians 10:31 says,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Corinthians 10:31』<sup>31</sup> *Whether therefore ye eat, or drink, or whatsoever ye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고린도전서 10:31』<sup>31</sup>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All things the church does should be done to bring glory to the name of the Lord.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Within that broad and all-encompassing purpose we can discern a few subsequent ones. 그런 넓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 proper ends for a local congregation's life and actions are the worship of God,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저는 지역 모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Accordingly, these three purposes in turn serve the glory of God. 이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So to speak, the local church exists to glorify God through worshiping Him, edifying His people, and evangelizing the world. 말하자면, 지역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Now, I want to take a closer look at these three purposes. 그럼, 이 세 가지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3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기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Bible?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Let's read Matthew 22:35-38. 마태복음 22:35-38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22:35-38』<sup>35</sup> *Then one of them, [which was] a lawyer, asked [him a question], tempting him, and saying, <sup>36</sup> Master,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sup>37</sup> Jesus said unto him,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sup>38</sup>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35-38』<sup>35</sup>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sup>36</sup>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sup>37</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sup>38</sup>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As such, the greatest commandment is to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이와 같이, 가장 큰 명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If so, how should we love the Lord our God?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To love God is to worship and serve Him as Luke 4:8b says,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복음 4:8b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Luke 4:8b』<sup>8</sup>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누가복음 4:8b』<sup>8</sup>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Therefore, the first purpose of the church, that is to worship God, is to perform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given by our Lord. 따라서, 교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명령을 행하는 일입니다.

Then, how should we worship and serve Go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The book of Psalms provides many beautiful examples of how to worship and praise our Creator. 시편은 우리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to read Psalm chapters 8, 19, 23, 24, 67, 99, 117, and 150. 저는 여러분께서 시편 8, 19, 23, 24, 67, 99, 117, 그리고 150장을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That being said, I will read only a few verses from Psalms in order to save the time. 시간 관계로 시편의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Psalms 66:4』<sup>4</sup> *All the earth shall worship thee, and shall sing unto thee; they shall sing [to] thy name. Selah.*

『시편 66:4』<sup>4</sup>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Psalms 96:9』<sup>9</sup> *O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fear before him, all the earth.*

『시편 96:9』<sup>9</sup>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Psalms 95:6』<sup>6</sup> *O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시편 95:6』<sup>6</sup>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The Prophet Isaiah and Apostle John also mention that God created men to be worshipped and praised by them. 대언자 이사야와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Isaiah 43:21 and Revelation 4:11. 이사야 43:21절과 요한계시록 4:11절을 읽어봅시다.

『Isaiah 43:21』<sup>21</sup> *This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they shall shew forth my praise.*

『이사야 43:21』<sup>21</sup>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Revelation 4:11』<sup>11</sup>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ur and powe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요한계시록 4:11』<sup>11</sup>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In addition, Apostle Paul describes that God saved us to be worshipped and praised by us. 덧붙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Ephesians 1:6 & 5:19 and 1 Corinthians 6:20b. 에베소서 1:6절 & 5: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20b를 읽어봅시다.

『Ephesians 1:6』<sup>6</sup>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erein he hath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에베소서 1:6』<sup>6</sup>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Ephesians 5:19』<sup>19</sup>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에베소서 5:19』<sup>19</sup>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1 Corinthians 6:20b』<sup>20</sup>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고린도전서 6:20b』<sup>20</sup>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As such, the first purpose of the church is to glorify God by worshipping Him. 이와 같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 4 Worshipping God 하나님을 경배하기

Now, I would like to give you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worshipping God. 이제,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First of all, we'd better go to the verse where the word 'worship' occurs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경배 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로 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By the way, one of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ible hermeneutics) is "the law of first mention," 그런데, 성경 해석의 원칙(성서해석)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which is defined this way: "The first time a word occurs in the Scriptures gives the key to understand its meaning in every other place." 그것의 뜻은 이러합니다, "성경기록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의 그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쓰인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Now then, let's read Genesis chapter 22 where the word 'worship' appears for the first time. 그렇다면,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창세기 22장을 읽어봅시다.

Let's read Genesis 22:1-5. 창세기 22:1-5절입니다.

『Genesis 22:1-5』<sup>1</sup>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God did tempt Abraham, and said unto him, Abraham: and he said, Behold, [here] I [am].* <sup>2</sup> *And he said, Take now thy son, thine only [son] Isaac, whom thou lovest, and get thee in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for a burnt offering upon one of the mountains which I will tell thee of.* <sup>3</sup> *And Abraham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addled his ass, and took two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Isaac his son, and clave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rose up, and went un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sup>4</sup> Then on the third day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place afar off. <sup>5</sup> And Abraham said unto his young men, Abide ye here with the ass; and I and the lad will go yonder and worship, and come again to you.

『창세기 22:1-5』 <sup>1</sup>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sup>2</sup>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sup>3</sup> ¶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sup>4</sup>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sup>5</sup>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Here Abraham didn't say "I'm going to sacrifice." although God commanded him to offer his son Isaac for a burnt offering, that is, a sacrifice.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 즉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지만, "가서 희생물을 드리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he said, "I'm going to worship." 대신에, 그는 "가서 경배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As such, worship and sacrifice are synonymous. 이처럼, 경배와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fore, we have to worship God by presenting 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as Romans 12:1 says, 따라서, 로마서 1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Romans 12:1』 <sup>1</sup>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로마서 12:1』 <sup>1</sup>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Now, I would like to search what our Lord Jesus taught about worshipping God. 그럼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Let's go to John 4:23 & 24. 요한복음 4:23 & 24절을 봅시다.

『John 4:23-24』 <sup>23</sup> But the hour cometh,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 Father seeketh such to worship him. <sup>24</sup>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요한복음 4:23-24』 <sup>23</sup>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sup>24</sup>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The word spirit, here, stands opposed to rites and ceremonies, and to the pomp of external worship,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의례, 의식, 외적인 허세와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because the word spirit is defined as the invisible part as Luke 24:39 says, 영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4:39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Luke 24:39』 <sup>39</sup> Behold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handle me, and see; for a spirit hath not flesh and bones, as ye see me have.

『누가복음 24:39』 <sup>39</sup>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So, spiritual worship is that where the heart is offered to God, and where we do not depend on external forms for acceptance. 그래서, 영적 예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Let's go back to John 4:23 & 24. 요한복음 4:23 &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The word truth, here, means the Word or Jesus, because John 1:14 & 14:6 say so.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말씀 혹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요한복음 1:14 & 14:6절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John 1:14』 <sup>14</sup>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1:14』 <sup>14</sup>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John 14:6』<sup>6</sup> *Jesus saith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요한복음 14:6』<sup>6</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So, true worship is to preach the Word of God, and also to preach that our Lord Jesus is the only Savior.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In addition, it can be summarized in the simplest terms: 덧붙여서,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Read the Bible, preach the Bible, pray the Bible, sing the Bible, and see the Bible.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며, 성경을 보아라.”

## 5 Loving Neighbours 이웃을 사랑하기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second great commandment in the Bible? 성경에서 두 번째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Let's read Matthew 22:39-40. 마태복음 22:39-40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22:39-40』<sup>39</sup> *And the second [is] like unto it,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sup>40</sup>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마태복음 22:39-40』<sup>39</sup>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sup>40</sup>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As such, the second great commandment is to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이처럼, 두 번째 큰 명령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If so, how should we love our neighbours?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To love our neighbours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piritual status.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o love our saved neighbours is different from to love our lost neighbours in terms of goal achievement. 다시 말해서, 목표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First, to love our Christian neighbours is to edify them. 첫째로, 그리스도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The local church exists to glorify God by edifying His people.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The community of Christians gathers to enjoy true Christian fellowship.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This is more than idle chit-chat and shared lunches but crucial one-to-one ministry where we acknowledge we are all ministers of God's Word who are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other people's souls. 이것은 단순히 잡담을 나누고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사이며,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안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중대한 일 대 일의 선교활동입니다.

Let's read Ephesians 4:15-16. 에베소서 4:15-16절을 읽어봅시다.

『Ephesians 4:15-16』<sup>15</sup>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sup>16</sup> *From whom the whole body fitly joined together and compacted by that which every joint supplieth, according to the effectual working in the measure of every part, maketh increase of the body unto the edifying of itself in love.*

『에베소서 4:15-16』<sup>15</sup>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sup>16</sup>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On the contrary, to love our non-Christian neighbours is to evangelize them. 이와 반대로, 비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The local church exists to glorify God by evangelizing the world. 지역교회는 세상을 복음화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A healthy church is an evangelizing church.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A complete sermon is one that calls upon the lost to turn to Christ and be saved. 완전한 설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설교입니다.

While church is first a gathering of God's people, it is also a gathering to which unbelievers are invited so they can hear the gospel and see it lived out by Christians. 교회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사는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Churches that become insular rather than evangelistic will ultimately lose their love, their zeal, and their vitality. 복음을 전하기 보다는 고립을 추구하는 교회는 결국 그들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to mention once more 2021 vision of IIBC that is Matthew 28:19-20. 이 기회를 빌어, IIBC의 2021년 비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비전은 마태복음 28:19-20절 말씀과 같습니다.

『Matthew 28:19-20a』<sup>19</sup>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sup>20</sup>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마태복음 28:19-20a』<sup>19</sup>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sup>20</sup>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 6 Gathering Together 함께 모이기

Now, I would like to give you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the reason why Christians should gather together.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를 더 깊숙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word “church”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ecclesia, which is defined as “an assembly” or “called-out ones.”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는 “모임” 혹은 “부름 받은 자들”로 정의됩니다.

And we have searched that the local church exists to glorify God through worshiping Him, edifying His people, and evangelizing the world. 우리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백성을 세워주며, 세상을 복음화 함으로써 하나님에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 보았습니다.

So, Christians should not forsake the assembling of themselves together to perform these three purposes of the church.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ere, some may ask a question about worship like this. 여기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Wait Preacher, do you mean that God doesn't accept the private worship?”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No, I don't think so.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We can worship God when we are all alone, even while driving, sitting, walking, or bathing.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운전하면,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목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However, we are not to worship God with the precepts of men as Matthew 15:9 says, 하지만, 마태복음 15: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Matthew 15:9』<sup>9</sup> But in vain they do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마태복음 15:9』<sup>9</sup>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This means that we are to study God's words to learn and know the truth about worship,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nd it is the church that provides this through its biblically-based teaching.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가르

침을 통해 진리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In addition, we should remember the verses that Christ Jesus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commanded His Church to gather together in His name as Matthew 18:19 & 20 says. 이에 더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19 절입니다,

『Matthew 18:19-20』<sup>19</sup> *Again I say unto you, That if two of you shall agree on earth as touching any thing that they shall ask, it shall be done for them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sup>20</sup>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마태복음 18:19-20』<sup>19</sup>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sup>20</sup>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Now, let's think about the second purpose of the church that is to edify saints. 이제,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Let's read Ecclesiastes 4:9-12, which are my favorite verses by the way.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전도서 4:9-12절을 읽어봅시다.

『Ecclesiastes 4:9-12』<sup>9</sup>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ward for their labour.* <sup>10</sup> *For if they fall, the one will lift up his fellow: but woe to him [that is] alone when he falleth; for [he hath] not another to help him up.* <sup>11</sup> *Again, if two lie together, then they have heat: but how can one be warm [alone]?* <sup>12</sup> *And if one prevail against him, two shall withstand him; and a threefold cord is not quickly broken.*

『전도서 4:9-12』<sup>9</sup>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sup>10</sup>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로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sup>11</sup>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sup>12</sup>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As such, no Christian can live a victorious life without fellow-Christians. 이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동료 그리스도인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In other words, God wants us to gather together as a local church to edify His people.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Let's read once more today's main verses which are Hebrews 10:24-25. 오늘의 주 성경구절인 히브리서 10:24-2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Hebrews 10:24-25』<sup>24</sup> *And let us consider one another to provoke unto love and to good works:* <sup>25</sup>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히브리서 10:24-25』<sup>24</sup>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sup>25</sup>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Unless we gather together, how can we consider one another to provoke unto love and to good works and exhort one another?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Thus, we should gather together as a local church to edify one another as our ancestors of faith did so in Acts 2:46.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 2:46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 처럼 지역교회로서 함께 모여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Acts 2:46』<sup>46</sup> *And they, continuing daily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did eat their meat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

『사도행전 2:46』<sup>46</sup>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Finally, let's think about the third purpose of the church that is to evangelize unbelievers.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As I mentioned just before, the church is also a gathering to which lost souls are invited in order that they can hear the Gospel unto salvation. 조금 전에 언급한 것 처럼,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초대되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As you know, many brothers and sisters have been saved because they could hear the Gospel here at IIBC. 아시는 것 처럼, 지금까지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IIBC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Therefore, God wants us to gather together as a local church to evangelize the worl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함께 모여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바라십니다.

## 7 Online Church 온라인 교회

As we have searched so far, the church that the Bible mentions, can never be replaced by online church. 지금까지 찾아 보았던 것 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온라인 교회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So, it is clear that online church was not intended by God. 온라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However, don't get me wrong.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I'm not saying that everyone who is participating in this service on YouTube does not worship God. 저는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nyhow, it is true that online church has become the main stream. 어쨌거나,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hus, we need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is age in which online church replaces the assembling together of saints.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을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irstly, we should know that it was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that activated online church world wide. 첫째, 우리는 온라인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시킨 것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ccordingly, the age of online church has the same meaning as the age of COVID-19 does. 따라서, 온라인 교회의 시대는 코로나-19의 시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online church activity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as I preached on emergence of COVID-19 last year. 다시 말해서, 온라인 교회 활동의 증가는 제가 작년 코로나-19의 출현에 대해 설교했던 것 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review my sermon entitled "The Age of Pestilences." "역병의 시대" 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다시 한 번 리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In addition, the rising popularity of online church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덧붙여서, 온라인 교회의 득세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because online church is impossible without the internet which makes the world smaller and knowledge increased at the time of the end, as Daniel 12:4 says, 온라인 교회는 세상을 더 작게 만드는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하며, 다니엘서 12: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Daniel 12:4』<sup>4</sup> But thou, O Daniel, shut up the words, and seal the book, [even] to the time of the end: many shall run to and fro, and knowledge shall be increased.

『다니엘 12:4』<sup>4</sup>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The second thing we should know about the age of online church is that internet platform companies which enable online church, have the power to ban online church. 온라인 교회의 시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온라인 교회를 금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Let's think about the real identity of Big Tech. 빅테크가 정말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By the way, Big Tech refers to the major technology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Amazon, Facebook, Twitter and Microsoft, which have inordinate influence. 빅테크라 함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 기업들을 말합니다.

As you know, the decision by the likes of Facebook, YouTube and Twitter to permanently ban Donald

Trump a couple of months ago, marked a “seismic shift” in the world. : 아시는 것 처럼, 몇 달 전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을 영원히 중지한 결정은 세상에 “지각 변동”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saw the big tech giants decide that some people’s thoughts, ideas, and opinions were not to be shared with the wider world, and blocked tens of thousands of accounts, closing many of them permanently. 처음으로 우리는 빅테크 거물들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 사고와 의견이 세상과 공유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 만 명의 계정을 차단하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영원히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This symbolizes just how powerful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have become. 이것은 거대한 빅테크 회사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상징합니다.

In other words, Big techs are bringing about totalitarianism, as they are treating people like Nazi Germany would have done. 다시 말해서, 빅테크들이 마치 나치 독일이 사람들을 다루었던 것 처럼, 전체주의적 사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However, some might say like this.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Preacher, although they might be politically biased, Big Techs seem to be tolerant of Christianity, because they allow Christians to have opportunities to worship God through their internet platforms.” “목사님, 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을지 몰라도, 빅테크들은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이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No, I don’t think so.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ig Techs are very hostile to Christianity. 빅테크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적대적입니다.

Let me tell you how they attack Christianity. 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Since a long time ago, Big Techs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make New World Order by spreading the Gender Ideology, which is state-of-the-art weapon to destroy Christianity. 오래 전 부터, 빅테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림으로써 신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By the way, if you want to know more and better the tactic of Satan through the Gender Ideology, please review my sermon titled “The Age of Bohemian Rhapsody.”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탄의 전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시대”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보아 주십시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which shows Google and Facebook supporting Gay Pride at San Francisco in 2012.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한 번 보십시오.

And also let’s read the news which was reported three weeks ago. 그리고 삼 주 전에 나온 뉴스도 읽어 보십시오.

The title of this article is “Amazon quietly removes book criticizing transgender ideology.” 이 기사의 제목은 “아마존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비난 서적을 조용히 제거하다”

I’m sorry I don’t have enough time to show you many proofs that Big Techs are led by the Devil. 빅테크들이 마귀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증명을 보여드릴 충분한 시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Anyhow, it’s now a real possibility that perhaps a few years from now, Facebook, YouTube, and others may prohibit church online and ban any Christian content including mine. 어쨌거나,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면, 페이스북, 유튜브와 다른 빅테크들이 온라인 교회를 금지하고, 저의 것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 콘텐츠를 금지할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please remember that as I preached two years ago, the diffusion of gender ideology must be a good sign to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ecause Jesus will come again so quickly. 그렇지만, 제가 이 년 전에 설교했던 것 처럼, 젠더 이데올로기의 만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refore, we should do not forsake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we see the day of the Lord approaching, as Hebrews 10:25 says,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10: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Hebrews 10:25』<sup>25</sup>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히브리서 10:25』<sup>25</sup>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 8 Conclusion 결론

Now, I will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Firstly, the local church exists to glorify God through worshiping Him, edifying His people, and evangelizing the world. 첫 번째, 지역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백성을 세우며, 세상을 복음화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Secondly, we have to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and also by presenting 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두 번째,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Thirdly, we should gather together as a local church to edify one another and to evangelize the world. 세 번째,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교회로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Fourthly, the increase in online church activity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네 번째, 온라인 교회 활동의 증가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Fifthly, Big Techs may prohibit church online and ban any Christian content sooner or later. 다섯 번째, 빅테크들이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금지하고 모든 기독교 콘텐츠를 금할 때가 조만간 올 지 모릅니다.

Lastly, therefore, we should do not forsake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we see the day of the Lord approaching. 마지막으로, 따라서, 우리는 주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 Let's pray \*\*\*

Father,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discern the Age of Online Church. We give you all glory and honour and power forever and ever. In Jesus' name I pray, Amen.